2003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제 1 교시 •
언어 영역

정 답

1	①	2	③	3	⑤	4	③	5	①	6	③	7	③	8	②
9	②	10	④	11	②	12	④	13	⑤	14	⑤	15	③	16	⑤
17	③	18	②	19	⑤	20	③	21	②	22	②	23	③	24	④
25	④	26	③	27	①	28	①	29	②	30	①	31	⑤	32	④
33	④	34	④	35	③	36	⑤	37	⑤	38	⑤	39	⑤	40	⑤
41	③	42	④	43	③	44	①	45	②	46	⑤	47	④	48	④
49	④	50	②	51	②	52	②	53	③	54	①	55	③	56	①
57	①	58	④	59	④	60	①								

해 설

[듣기 대본]

[1] 이제 여러분은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된 광고를 만들기 위해 두 학생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학생 : 오늘은 각자 준비해 온 이야기를 나누면서 광고 문구를 만들어 보자. 우리 누나 얘기 먼저 해 볼까? 우리 누나는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넘도록 취직을 못하고 있어. 그런데도 작은 회산 가기 싫다는 거야. 힘들게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한두 해 다니다 말 것도 아닌데 조금이라도 편한 길을 택하겠다는 거야.
여학생 : 나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 취업 컨설팅 회사에 다니시는 우리 작은아버지 말씀이, 요즘 중소기업, 그것도 꽤 유망한 중소기업에서도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애써 구해 놓아도 한 달을 못 버틴대.
남학생 : 그럼 그런 내용을 광고 문안 만드는 데 이용해 보자.
여학생 : 참!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
남학생 : 뭔데?
여학생 : 히말라야 고산족 사람들이 양을 사고팔 때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야. 이 사람들은 양을 거래할 때 양을 가파른 산비탈에 놓아 둔다는 거야. 이 때 양이 비탈 위로 풀을 뜯으면서 올라가면 값이 비싸게 매겨지고, 아래로 내려가면 값이 싸진다는 거지.
남학생 : 왜 그러지?
여학생 :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편하기는 하지만 계곡에 이르러서는 풀이 없어서 결국 굶어 죽게 된다는 거지.
남학생 : 그렇구나! 그 이야기도 문구를 만드는 데 활용해 보자.

1. [출제 의도] 대화 내용을 적용하여 광고 문구 만들기

대화 내용에 의하면 청년 실업 문제는 쉬운 길만을 선택하려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양을 거래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쉬운 길만을 선택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도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③은 히말라야 고산족 이야기에서 '청년'에 대응하는 것이 '양'임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

[2] 이번에는 기자가 과학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기자) : 게놈(genome) 사업이 완성된 후, 이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생명 공학의 최근 동향은 어떻습니까?
남(교수) : 게놈 사업으로 인체를 구성하는 유전자 각각의 구조는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생명 현상은 수많은 유전자끼리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명 공학자들은 이러한 상호 작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피지옴(physiome)'이 바로 그것이죠.
여 : 매우 생소한 개념이네요.
남 : 피지옴이란 '생명'을 뜻하는 피지오(physio)와 '전체'를 뜻하는 옴(ome)의 합성어입니다.
여 : 그렇다면 생명 현상을 전체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뜻인가요?
남 : 그렇습니다. 유전자의 상호 작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생명 현상에 접근하려는 학문이죠.
여 :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남 : 피지옴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정보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의 장기나 세포를 만들고, 가상 공간에서 모의 실험을 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 유전자들 간의 상호 작용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1997년 미 식품의약국은 한 제약 회사가 신청한 고혈압 치료제의 승인을 보류하면서, 1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해 안정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죠. 그러나 이 제약 회사는 1백 명을 대상으로만 임상 실험을 하고, 나머지는 가상 심장 실험 결과를 제출했는데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 : 그러면 임상 실험을 할 때보다 훨씬 경제적이겠네요?
남 :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생명 현상의 실체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2. [출제 의도] 인터뷰 내용을 듣고 신문 기사 제목 만들기

'피지옴'은 게놈 이후에 등장한 생명 과학 분야의 유력한 이론으로, 그 핵심은 가상 공간에서의 모의 실험을 통해 유전자들의 상호 작용을 전체적으로 조망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제목이 ③이다.

[오답 피하기] ①은 피지옴이 경제적 효과에 착안한 것이지만 '명분'과의 관련성을 추리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문제와 답지까지 듣고 푸는 문제이니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의 최대 화제는 '게임'입니다. 이처럼 게임 문화가 확산되게 된 배경에는 문화 산업의 발전과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한 동력이라는 논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에는 넘치는 마력이 있습니다. 사회적 제약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은 억압이 최대한 배제된 자유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사이버 세계로 들어오는 순간, 현실 세계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페르소나', 즉 자신이 바라던 가상의 인물이 되어 '자신이 원했던' 색다른 역할을 창조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현실 세계의 성, 직업, 나이 등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불가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세계는 바로 이 장점들 때문에 무서운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거의 없는 상상적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면, 동시에 '불가능'과 '장애'와 '제약'의 경험도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성장'입니다. 생텍쥐페리의 말처럼 인간은 장애물을 통해서만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이'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를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저쪽 세계로 넘어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넘어

오지 못하면 놀이는 이미 놀이가 아니라 '중독'입니다. 그런 능력이 부족한 우리 청소년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임 중독 현상이 걱정스러운 것은, 그로 인해 청소년들이 현실 감각을 잃고, 좌절과 우울의 덫에 갇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독자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괴리를 수습하지 못해 혼란에 빠지고 정체성의 파탄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할 만한 최악의 상황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즉 '그만두기'입니다. 이처럼 게임 중독의 폐해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된다는 사실에만 기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늦기 전에 이 폐해의 사회적 위험과 비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문제와 답지를 들려 드립니다. 이 강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반응을 보인 청중은 누구입니까?

첫째 청중 : 우선 게임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을 만든 기성 세대가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 청중 : 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청중 : 게임 산업 운영자에게는 수익성이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넷째 청중 : 게임을 통한 창조적·주체적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게임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청중 : 중독 가능성이 높은 게임도 문제지만, 청소년들 스스로가 중독을 경계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3. [출제 의도] 강연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기

강연자는 게임 중독은 사회적인 문제이며, 청소년들 스스로가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섯째 청중의 발언은 이러한 취지와는 상반된 반응이다.

[4] 이번에는 호주제 폐지를 주제로 한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남) : 호주제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호주제 폐지 찬성론 측부터 말씀해 주시죠.
찬성론자(여) : 오늘날 노비 제도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일제 식민 지배의 잔재를 민족 고유의 전통이므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 이전에 엄청난 사실의 왜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주제는 일제 침략 이후 일제의 천황제적 가족 국가 이데올로기가 변질되어 우리나라에 이식된 것입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반대론 측에서 말씀해 주시죠.
반대론자(남) : 호주제는 일제 잔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제는 우리의 가문 전통을 없애려고 창씨 개명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호주제는 수천 년의 경험과 지혜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 가족 제도의 근간입니다.
사회자 : 한 시민 단체에서 실시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 제도 자체가 붕괴될 염려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될까요?
반대론자 :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결국 가문, 집안이라는 법률상의 가족 공동체와 가계 계승을 없애자는 말입니다. 가계 계승과 일가 친척 간의 유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전통 가족 제도를 총체적으로 파괴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찬성론자 : 현재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가족 제도는 핵가족입니다. 부모와 자녀 두 세대로 구성된 가족에서 '가족을 통솔하고 지배하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인 호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호주제와 상관없이 가족은 있는 것입니다.

4. [출제 의도] 토론을 듣고 주장의 논거 찾기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된다는 우려에 대해 호주제 폐지 찬성론자가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호주제가 폐지 가족의 존재와 무관한 것임을 밝히면 된다. 따라서 ③이 적절한 논거이다.

[오답 피하기] ④는 반대론의 논거가 될 수 있으며, ①, ②, ⑤는 논점이 전통 문제, 가족 해체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5번과 6번] 이번에는 강의를 들려드립니다. 그림을 보면서 듣고 5번과 6번 두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건축과 동물의 집'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많은 동물들의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흰개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흰개미를 목조 건물이 많은 지역에서 사는 해충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조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을 갉아서 못쓰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흰개미는 자연계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흰개미는 많게는 수백만 마리의 개체들이 모여 사회 생활을 하며, 둥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개미와 같을 뿐 개미류는 아닙니다. 흰개미는 단단한 피부가 없어서 외부 기온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마치 인큐베이터 속에 든 미숙아처럼 일정한 습도와 온도가 유지되는 환경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외부의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생존의 관건인 셈이죠.

그림에서 보다시피 흰개미 둥지는 대략 지하실, 둥지방, 다락방, 외벽 채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둥지에서 공기가 순환되는 과정을 알아봅시다. 편의상 맨 아래 지하실에서부터 공기가 흘러간다고 보겠습니다. 지하실 위에 둥지방이 있는데, 여기에는 흰개미 방과 균실이 있습니다. 이 균들은 흰개미들에게 서식처를 제공받는 대가로 둥지 내부의 습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둥지방 꼭대기에 아치 모양으로 생긴 공간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에는 파이프같이 생긴 구멍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외벽 채널입니다. 거의 수직으로 뻗어 있는 이 파이프들을 따라 내려오면 처음 출발했던 지하실에 도착하게 됩니다. 둥지 내의 공기는 이런 통로를 따라 순환하는데, 이 과정에서 온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메모해 보세요. 지하실의 온도가 25.3℃였을 때 둥지방 중앙부는 30℃, 다락방은 29.3℃입니다. 외벽 채널 입구는 25.5℃, 그 끝은 24.4℃입니다. 호흡을 통해 배출되는 탄산가스의 농도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하실이 1.3%, 둥지방이 2.7%, 다락방이 2.9%, 외부 채널 입구가 2.7%, 끝 부분이 0.8%의 분포를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흰개미 둥지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흰개미를 둥지에서 끌어내면 몇 시간 안에 죽습니다. 흰개미는 이처럼 허약한 생명체이지만, 에너지를 소비하는 냉난방 장치나 가습기가 없어도 훌륭하게 생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5. [출제 의도] 그림을 보면서 강의를 듣고 정보 추리하기

흰개미 둥지 내부의 공기는 외벽 채널을 통과하면서 냉각, 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둥지 내부의 면적과 관련된 정보는 언급되지 않았다.

6. [출제 의도] 발화의 의도 추리

강의의 주제인 '현대 건축과 동물',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흰개미와 인간의 건축을 대비한 부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강의는 현대 건축의 문제점을 찾고, 동물의 집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의도에서 개설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7~12]

7. [출제 의도] 주제를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연상하기

산성비로 인해 숲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내용은 환경 문제와는 관련이 있으나, 상위 항목인 '숲의 효용'과는 관련이 없다.

8. [출제 의도] 수집한 글감에 근거하여 개요를 수정, 보완하기

'양심 자전거 제도'는 자료의 성격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정도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2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의 하위 항목으로

설정하기 곤란하다.

9. [출제 의도] 자료를 해석하여 논지 전개 방향 설정하기

(가)를 통해서는 인터넷 보급률이 급증하고 있음을, (나)를 통해서는 인터넷이 가져온 변화(생활 양식의 변화, 빈부 격차 심화)를, (다)를 통해서는 통신 업체의 상업성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②는 (나)를 왜곡하여 (가)와 연결하였으므로 적절한 내용 전개라 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③은 (가)와 (다), ④, ⑤는 (가)와 (나)를 결합하여 이끌어낸 전개 방향이다.

10. [출제 의도] 조건에 맞게 영화를 소개하는 글쓰기

④는 첫문장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제시하였고, 둘째 문장에서 감상의 주안점을 밝히면서 우회적으로 감상을 권유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조건을 충실하게 반영했음을 알 수 있다.

③은 우회적으로 영화 감상을 권유하라는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11. [출제 의도] 어휘 의미 탐구하기

'한복감'의 '감'은 감2㉡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겉감'은 감2㉠의 뜻을, '빨랫감, 일감'은 감2㉤의 뜻을 가지고 있다.

12. [출제 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그지없다'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3～17]

13. [출제 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는 모두 대립적인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는 '밤'과 '태양'이라는 대립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는 '잿더미'와 '개나리, 소녀'의 이미지 대립을 통해 전쟁의 참상 속에서 순수한 존재를 발견하고 있으며, ㈐는 '차가운 비'와 '뜨거운 물, 불'의 대립을 통해 시적 화자의 한의 정서를 부각시키고 있다.

14. [출제 의도]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A]는 <보기>에 보이지 않던 '소녀의 얼굴에 이빨이 빠진 모습'이 묘사되면서 화자와 대상의 공간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을 준다.

[오답 피하기] [A]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보기>를 이어진 문장 하나로 표현하면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소녀의 미소에 앞니가 빠져'는 일상적인 어법을 뛰어넘은 시적 표현이며, '죄 하나도 없다'는 '소녀가 죄가 없다'는 의미와 '소녀의 이빨이 모두 빠져 하나도 없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중의적인 표현이 되었다. '언덕을 내려가고 있다'가 '언덕을 내리달리는'으로 바뀌면서 소녀의 모습이 좀더 생기 있게 그려지고 있다.

15. [출제 의도] 해석의 타당성 판단하기

'유년의 캄캄한 늪에서 한 마리의 이무기는 살아남아'는 유년 시절의 삶과 현재의 삶이 단절되지 않고 한의 정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6. [출제 의도] 시적 정조 파악하기

㉠에는 따뜻하고 행복했던 과거를 상실하여 한탄하고 있는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이와 가장 유사한 시의 정조가 ⑤에 드러난다. '마을아, 억센 풀아, 무너진 흙담들아'와 같은 표현을 통해 화자가 고향을 상실한 사람임을 알 수 있으며, '돌아가 고향 하늘에 홀로 글썽이리'라는 말로 상실감으로 인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출제 의도] 시구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는 아이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나도 돌아선다. /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는 표현은 그러한 심리를 뒷받침한다.

[18～22] 최병태, 욕망의 훈련

18. [출제 의도] 이어질 내용 추리하기

이 글은 '왜 욕망의 통제가 필요한가?'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욕망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면 구체적으로 욕망의 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명이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논리적인 순서이다.

19. [출제 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이 글에 따르면, 욕망의 통제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답지 중에서 이런 경우를 찾으면 ⑤가 된다.

[오답 피하기] ①은 아예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② 도덕적인 선악을 판단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③ 도덕적인 선악을 따지기도 어렵고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20. [출제 의도] 다른 작품에 적용하기

③은 '금은옥백'이나 '진초의 부(富)', '조맹의 귀(貴)' 같은 세속적인 욕망은 다 부질없는 근심거리일 뿐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연 속에서 도리를 깨닫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므로 ㉠의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1. **[출제 의도]**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한자어로 바꿔 쓰기

'귀착(歸着)'은 '의논이나 의견 따위가 여러 경로(經路)를 거쳐 어떤 결론에 다다름.'이란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의 문맥적 의미와 유사하다.

[오답 피하기] 귀납(歸納)-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 및 법칙을 유도해 내는 일. 귀환(歸還)-다른 곳으로 떠나 있던 사람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반환(返還)-빌리거나 차지했던 것을 되돌려 줌. 환원(還元)-본디의 상태로 다시 돌아감.

22. [출제 의도] 견해 차이의 이유 추리하기

시험 부정 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를 설명하면서, 지행합일설의 입장에서는 '부정 행위는 나쁘다'는 앎, 부정행위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 판단, 부정 행위를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 등을 모두 '앎'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욕망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부정 행위는 나쁘다(부정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규범적 지식'만을 '앎'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두 입장이 갈리게 된 이유는 '앎(지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규정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3-27] 전상국, 우상의 눈물

23. [출제 의도] 서사 구조 파악

이 작품의 중심적인 사건은 형우를 비롯한 담임 선생님, 같은 반 학생들이 온갖 폭력을 행사하던 최기표를 평범한 학생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기표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표를 도움을 받아야 할 불쌍한 학생으로 낙인찍어 나간다. 기표가 칭찬을 받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 이같은 낙인이 찍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답 피하기] ①, ② 길들이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④ 도와주기의 과정이다. ⑤ 기표를 따돌리는 행동이다.

24. [출제 의도] 대화 양상의 파악

서술자 '나'는 대화를 주도하면서, 상대방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넘겨 짚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추측했던 것의 진위를 확인해 나가고 있다. “담임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지?”라는 말에 이같은 말하기 방식이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서 “그런데?”라고 말함으로써, 다음 말을 재촉하고 있다.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궁금했던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암시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25. [출제 의도] 관용어의 형성 적용하기

<보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위’라는 말이 관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④의 ‘심장’은 이 문맥에서는 인체의 장기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관용어로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폐부(허파), 마음의 깊은 속을 세게 자극하다. ②애(애간장), 몹시 안타깝고 초조하여 속이 타다. ③ 줏대 없는 언행을 하다. ⑤간담(간과 쓸개), 몹시 놀라서 섬뜩하다.

26. [출제 의도] 내용 추리하여 표현하기

<보기>의 설명을 통하여 (A)의 내용이 인물의 운명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표는 다른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부끄러움 많은 불쌍한 학생의 처지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기표의 처지를 암시하는 말로는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고향에 대한 그리움, ② 옛날 애인에 대한 그리움, ④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⑤ 가정의 경제적인 몰락 암시

27. [출제 의도] 반응의 적절성 비판하기

이 작품에 형우의 기표에 대한 적대감은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그 같은 적대감이 부질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나타나 있다. 또한, 이 작품의 사건 전개를 보면서 떠올릴 수 있는 반응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피하기] ② 기표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만다. ③ 이 작품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사실의 왜곡 등은 현실 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④ 서술자 ‘나’는 작품 속 인물이면서도 사건의 전개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도 뚜렷이 말하지 않고 있다. ⑤ 부분적으로는 복잡한 구조의 문장이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 구조의 문장으로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다.

[28～32]

28.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

(가)는 배경을 이루는 ‘조각달’, ‘천 년의 구름’ 등을 통해 화자의 쓸쓸한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고, (나)는 ‘귓도리’라는 생물을 통해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표현하고 있으며, (다)는 ‘천층랑(험한 물결)’, ‘뜰 앞에 심은 난’, ‘외기러기’, ‘강천에 지는 해’ 등의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유배지에서의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29.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가)의 ‘조각달’은 천 년 동안 변함 없이 흘러가는 구름과 대비되는 대상으로 화자의 심정이 투영된 자연물이다.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지 못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둘’은 화자가 쓸쓸한 마음이 강조되는 분위기로서의 자연물이다. (라)의 ‘명월’은 화자가 과거에 익숙히 아는 존재로 만나고 싶어하는 대상이다.

30.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

(가)에는 초월적 존재가 나오지 않았다. 초월적 존재로 간주할 수 있는 ‘기린마’와 ‘천손(天孫)’은 각기 ‘성인이 나올 징조를 알리는 상상의 짐승’과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을 가리킨다. 화자는 이것을 통해, 어지러운 당시 세상을 구원할 인물이 나올 징조도 보이지 않아 동명왕과 같은 영웅이 그리워지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31. [출제의도] 주제의 파악 및 적용

(나)의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다. 그러니 ‘임에 대한 그리운 심정’과 비유적 표현이 쓰인 것만 찾으면 된다. ⑤에는 헤어진 임에 대한 그리운 심정이 ‘나무 되어 서 있네’라는 비유적 표현(은유법)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①②③은 ‘임에 대한 그리운 심정’은 나타나 있지만 비유법이 쓰이지 않았다.

32.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 파악

ⓓ의 ‘풍파’는 문맥상 ‘뱃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나타낼 뿐, 정치적 이유로 화자가 겪은 일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화자가 유배 생활을 오래 하다보니, 예전에 평화롭게 지내던 친구들이 그리워진다는 문맥에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33～37] 이익섭, 문자의 기능과 표기법의 이상

33. [출제 의도] 중심 화제 파악하기

이 글의 구조를 보면, 처음 두 문단에서는 말과 문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문자란 말과는 독립적인 기호라는 점을 밝히고, 다음 두 문단에서는 한글의 형태주의 표기와 모아 쓰기 표기법은 이러한 문자의 독립성을 반영한 표기법임을 밝힌 뒤 마지막 문단에서는 다시 문자는 독자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표기법을 택하는 것이 이상적인 문자 표기법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한글을 예로 들어서 문자의 이상적인 표기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찰한 글이라고 볼 수 있다.

34. [출제 의도] 글의 서술 방식 파악하기

이 글에는 비유가 전혀 쓰이지 않고 있는데, ④는 바로 비유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① 한글의 경우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② 표음 주의 표기와 형태주의 표기 방식을 대비시키고 있으며, 풀어쓰기 방식과 모아 쓰기 방식의 차이점을 대비시키고 있다. ③ 문자는 말의 대용물이라는 기존 생각을 비판하고 있다. ⑤ 첫 문단에서 ‘이상적인 문자나 표기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진 뒤, 이를 규명해 나가는 것이 이 글의 전체적인 구조이다.

35. [출제 의도] 적절한 구체적 논거 제시하기

③에서 ‘ㅐ’와 ‘ㅔ’의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자로 쓰여진 ‘배’와 ‘베’를 구별한다는 것은 문자를 말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사람의 경우에는 문자와 개념을 직접 대응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말과 사고(思考)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②⑤ 언어의 자의성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사례이다. ④ 음향과 음성의 차이를 설명할 때 들 수 있는 사례이다.

36. [출제 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이 글에서 ‘시각상의 통일을 위한 표기’의 예로 제시한 것은 ‘웃어라, 웃더라, 웃는다’의 경우이다. 즉 어미가 바뀜에 따라 어간의 발음이 달라지더라도 원래 어간의 형태를 밝혀 쓰는 것이 시각상의 통일을 위한 표기의 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⑤의 ‘어려운’은 어간이 ‘어렵-’인데도 불구하고 발음을 중시하여 소리나는 대로 쓴 경우에 해당한다.

37. [출제 의도] 적절한 반론 제시하기

<보기>에서 풀어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를 간략하게 간추리면 ‘문자란 쓰거나 입력하는데 편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 글에서 글쓴이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문자는 시각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글쓴이

의 입장에서 <보기>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문자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며,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효율성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요소를 다 충족시키는 것이 ⑤이다.

[38～42]

38. [출제 의도] 사건 전개 양상 파악하기

'성의가 틀림없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어찌하여 살았으며 이다지 영귀하게 되었는고. 만일 성의가 오면 나의 전후 행적이 발각되겠구나.'라는 항의 독백으로 보아 왕비는 항의의 속셈을 알고 성의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9. [출제 의도]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포악한 변'을 당해 두 눈을 잃고 바다에 버려져 섬에 이른 '성의'가 피리를 불면서 까막까치에게 과일을 얻어먹는 상황에서 '성의'는 부모와 고향 생각에 눈물지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심리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형상화한 것이 ⑤이다.

[오답 피하기] ① 고독을 느끼던 화자가 기러기를 보면서 반가워하고 있다. ② 정성스레 자리를 마련한 화자가 바라는 존재가 오지 않아 실망하고 있다. ③ 쓸쓸한 계절을 맞아 피리를 불며 세월의 무상함을 탄식하고 있다. ④ 이별한 임의 소식이 아득하여 슬퍼하고 있다.

40. [출제 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적용하기

⑤는 호승상이 은혜를 갚기 위해 '성의'를 도와주었다는 뜻이므로 이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전전긍긍(戰戰兢兢) :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

② 난형난제(難兄難弟) :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두 사물이 비슷하여 낫고 못함을 정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③ 학수고대(鶴首苦待) :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

④ 금의환향(錦衣還鄕) :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1. [출제 의도] 두 이야기의 공통적 서사 구조 파악하기

두 이야기에서 주인공들이 겪는 시련을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인공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성의'는 '모비'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바리데기'는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각각 서천과 저승으로 구약(救藥)의 길을 떠나 온갖 고초를 겪는 것이다.

42. [출제 의도] 작품 수용의 적절성 판단하기

이 글에는 '적부리 형제'가 권력을 상실한 존재인지, 나아가 그들이 어떤 동기로 '항의'의 제안에 응하고 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④는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반응이다.

[43-27] 이희재, '제레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 번역 후기'

43. [출제 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정보 통신의 급속한 발달이 문화의 상업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이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생기게 한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관광, 스포츠, 예술 등의 문화 산업이 있었다.

44. [출제 의도] 내용 구조 파악하기

이 글은 '접속'과 '문화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모든 문화가 상품화되는 사회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현상) 이어서 그같은 현상의 의미와 그것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다.(진단)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같은 현상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을 제시하고 있다.(대응 방안 제시)

45. [출제 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의 중심 내용은 문화가 상품화됨에 따라, 문화의 다양성이 무시되고, 문화가 획일화되었다는 것이다. ②에서 식혜를 공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은 문화의 상품화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식혜를 사먹고 집에서 담가 먹지 않게 되면, 식혜의 맛 곧 문화가 획일화된다.

[오답 피하기] ①고유 문화의 상품화, ③ 문화의 고유성 유지, ④ 고유 문화의 세계화, ⑤ 상품화된 문화의 한계

46. [출제 의도] 어휘의 형성 과정 적용하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기2>에서 제시한 청소년들의 특징을 파악한 다음, 이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기존의 다른 어휘를 찾아야 한다. <보기2>에서 제시된 특성들은 주체적 활동, 적극적 활동, 직접 체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의미와 가장 유사한 관계에 있는 것은 '참여'이다.

[오답 피하기] ① 좋아하는 가수 공연 관람을 제외하고는 감성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② 봉사 활동, 정의감 등은 개성과는 거리가 멀다. ③ 모험 활동을 즐기는 것만 관련이 있다. ④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내용만 담을 수 있다.

47. [출제 의도] 반응의 적절성 비판하기

글쓴이가 생각하는 문화의 상품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자세는 위 글의 마지막 문단에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다. 핵심 내용은 획일화된 문화에 빠져들지 않고,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화를 단순한 소비 상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다국적 기업의 상업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우리 기업 보호 육성 정책의 필요성은 위 글의 내용과는 무관하다. 이 글의 초점은 문화 수용의 자세이다. ② 소유와 접속은 문화 현상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일 뿐이다. 소유 관념의 약화가 문화적 다양성을 상실하게 한 것은 아니다. ③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생물 다양성 확보나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말을 했을 뿐이다. ⑤ 문화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고양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48～51] 최현묵, '윤동주'

48. [출제 의도] 대화 장면을 통해 등장 인물의 태도 파악하기

(가)에서 황부장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만을 강변하고 있을 뿐, 내심으로나마 김다은을 이해하고 있다는 근거는 찾을 수는 없다.

49. [출제 의도] 외부 정보에 근거하여 등장 인물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보기>의 화자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창작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가)와는 달리 (나)에서 '김다은'은 황부장의 생각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김다은'이 황부장으로 상징되는 현실에 타협한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가 들려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②는 (나)에서 김다은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50. [출제 의도]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글쓰기

동요라는 장르의 속성이나 황부장과 김다은의 논쟁 양상으로 보아, 이 노래를 등장 인물의 성격과 연관짓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어지는 장면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51. [출제 의도] 발화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단어가 지닌 의미

파악하기

'윤색'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미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바꿔'의 의미는 시청자의 흥미를 자아낼 수 있도록 '사실을 가지고 좀 재밌게' 만들자는 것이므로, '윤색'의 의미와 일치한다.

⑤는 '풀을 바른다'는 뜻으로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흐지부지 덮어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52～56] 김병수, 「일상 속의 과학」

52. [출제 의도] - 개괄적 정보 확인하기

원활한 소통 단계에서는 차량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속도를 높이며 차선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본문의 내용과 ②는 일치하지 않는다.

53. [출제 의도] - 유사한 사례 제시하기

교통 체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질의 상전이 현상에서 보이는 '임계치'를 교통에 적용하여 최적화 모델을 찾는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값을 찾은 사례를 제시한 것을 답으로 찾으면 된다. 이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한 것은 ③이다.

54. [출제 의도] - 개념을 적용하여 추리하기

차량의 흐름에서 차량의 수가 늘어나 어느 순간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정체 현상을 보이는데, 그 때가 임계치를 넘는 순간이다. 따라서 물질의 질적인 상태가 전환되는 상전이 현상을 교통에 적용해 보면 ①은 관련이 없다.

55. [출제 의도] - 유사한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늘다'는 '수나 분량이 본디보다 많아지다.'의 뜻이다. 이와 유사한 문맥적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③이다.

[오답 피하기] ①과 ⑤는 '재주나 능력 따위가 나아지다.', ③은 '힘이나 기운, 세력 따위가 이전보다 큰 상태가 되다.', ④는 '살림이 넉넉해지다.'의 의미이다.

56. [출제 의도] - 논지의 전개 흐름 파악하기

교통 체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질의 상전이 현상에서 힌트를 얻으려 하는 것이 제시문의 기본적인 발상이다. 물질의 상전이 현상이 인위적인 장치를 통해 통제가 가능하듯이, 교통의 흐름도 통제하려는 목적에서다. 이러한 통제가 가능하려면, 문제된 현상에서 일정한 법칙성을 찾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57～60] 이연우,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는 어디인가

57. [출제 의도] - 문단의 성격 파악하기

첫째 문단에서는 화제를 제시하면서 예술에 대한 본질주의적 시각을 언급한 뒤 이와 다른 관점을 지닌 디키의 시도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정의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58. [출제 의도] -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뒤샹이 출품한 작품을 전시회 주최측이 거부한 이유는 부도덕하고 상스럽다는 점과 창조성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즉,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디키는 분류적 의미에서 '인공성'과 '감상의 후보로서의 자격 수여'라는 두 가지의 필요 조건을 갖춘다면 예술 작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뒤샹은 출품한 '샘'에 대해 인공물로 만든 것이었지만 예술계로부터 예술 작품으로서의 자격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최측이 거부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59. [출제 의도] - 개념의 의미 적용하기

일반인들이 예술 작품에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럴 때의 '예술'을 평가적 의미라 한다는 말을 통해 대상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한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으면 된다. ⓓ는 '일정한 자격이나 품격 등을 갖춘 이'를 지칭하는 말이므로 평가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60. [출제 의도] - 적절한 근거 제시하기

가치 중립적이고 분류적인 의미에서 모든 예술 작품에 대해 정의하고자 했던 디키는 예술의 필요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그 중 '감상의 후보로서의 자격 수여'에서 '감상의 후보'라는 말을 쓴 것은 사람들이 흔히 분류적 의미가 아닌 평가적 의미에서 예술 작품을 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즉 사람들이 예술에 대해 갖고 있는 통념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